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 박물관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사업 -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과 전복적 번역 관점에서*

박 현 주
(이화여대)

1. 들어가며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NRICH)¹⁾는 1984년부터 2017년까지 8개국 53개 처를 대상으로 국외 소장 한국 문화재 조사 사업(이하 ‘NRICH 사업’)을 진행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22). 그 결과 이언어로 작성된 도록 형식의 보고서 편찬을 비롯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고, 조사 대상이었던 해외 박물관²⁾에서도 그 결과물이, 정도에 편차가 있긴 하지만 여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부록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364).

- 1) 2022년 2월 22일자로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본 연구는 개칭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 수행 기간 당시의 명칭인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기존 명칭을 사용하였다.
- 2)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사업 보고서 제목을 보면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의 광의의 박물관 개념을 적용해 이들 모두 박물관이라 통칭한다(단, 보고서는 출판된 제목 그대로 표기). 관련 논의는 박현주(2021: 59-61)를 참조할 수 있다.

<표 2> 참조).

본고는 동 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박물관 및 박물관 번역 관련 최근의 다학제적 논의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 주목한다.

첫째, 국외 박물관의 한국 유물이 그 매개가 된다는 측면에서, 박물관을 유물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그 소장품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며 대화가 지속되는 ‘접촉지대(contact zone)’(Clifford 1997: 192, Liao 2015: 179 재인용)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카운티박물관(LACMA) 조사 보고서는 한국 문화재를 ‘매개’로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졌다고 기술한 바 있다(임형진 2012: 36).

둘째, 클리포드(Clifford 1997)는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개념을 제시하며 여기에 내재한 권력 불균형은 상호주의(reciprocity)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스트(Boast 2011)는 동 개념이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같은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것으로 “신식민주의적(neocolonial)” 특성을 갖는다고 비판한다. 본고에서는 NRICH 사업이 주체성의 확보와 이언어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신식민주의적 측면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종의 ‘전복적 번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스테지(Sturge 2007)의 표현을 빌자면 “박물관 내 번역물(translations in the museum)”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박물관 번역을 “번역으로서의 박물관(museums as translations)”, 즉 과정으로서의 문화번역 개념으로 확장하는 최근 추세 하에서, NRICH 사업은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에서 발생하는 문화번역이라는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NRICH 사업에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시도하며, 더 나아가 동 사업이 한국의 표상과 관련해 지식과 해석을 독점 및 반복하고 재생산하는 제국의 기획(Pratt 2015: 32)을 번역을 통해 어떻게 전복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장에서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과 번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3장에서 ‘접촉’ 관점에서 NRICH 사업에 대해 논한다. 4장에서는 제국의 기획에 대응해 어떻게 전복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NRICH 사업의 “자가기술민족지적 요소”(본고 2장 참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다 특히 주체성 확보와 전복적 서사를 통한 저항이

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분석은 사업 과정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영미권 박물관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논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박물관 웹사이트 및 발간 자료를 함께 참조하도록 한다.

2.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과 번역

프랫(Pratt 2015: 32)의 접촉지대는 “지배와 복종, 식민주의와 노예제도 등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가로질러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가 초래한 결과 속에서 이중문화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회적 공간”이다. 그가 말하는 접촉지대는 문화말살(deculturation)이나 문화변용(acculturation)처럼 피지배국에 일방적으로 폐해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경에 위치한 중속 집단이 지배 문화에서 전해진 것 중 특정한 요소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창안하는 문화횡단이 발생하는 공간이다(Pratt 1991: 36).

클리포드(1997)는 관계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접촉지대라는 개념이 박물관과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박물관에서는 “권력이 깊게 관여된 일련의 교류(power-charged set of exchanges)”가 발생하며(Clifford 1997: 192) 이 공간에서 다양한 언어가 만나고 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투쟁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소장 기능을 강조한 근대 환경에서는 박물관의 권위적 목소리 때문에 표상된 문화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반해, 접촉지대 모델은 전시되고 있는 민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준다는 데 이점이 있다(Sturge 2007: 164).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근대 서구 박물관은(Randaccio 2018) 제국의 변방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타자’와의 거리, 즉 차이를 강조했다. 강제적으로 이전되거나 ‘변위(displaced)’, 혹은 그 위치가 변경된 타자의 기물(奇物)³⁾은 식민지 본국에서 식민지의 경계를 구체화시켜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박물관은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종의 공장(Sturge 2007: 136)으

로 기능했다.

이 박물관 속 식민지 경계는, 탈식민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조로 한 포스트뮤지엄(post-museum)에서 ‘접촉시대’로 화한다. 식민지에서 식민 본국으로 일방향적 이동을 하며 타자화/객체화된 식민지의 유물이 이제 문화 간 접촉, 양방향의 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박물관은 더 이상 “유물의 묘지”가 아니라 “동태(動態)로서의 박물관”으로 기능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움직이고 변화한다(김성은 2011: 258).

클리포드(1997)는 접촉시대로서의 박물관에서 “접촉작업(contact work)”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한다고 말하며 i) 전시 기획에의 토착 공동체 포함, ii) 박물관 소장품에 의례 목적 상 토착 공동체의 접근, iii) 식민 통치 시대 획득한 문화재의 반환을 그 예로 든다(Neather 2021: 306 재인용).

토착 공동체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박물관에서의 접촉작업은 자문 수준에서 일보 더 진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권위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문가가 백인의 전유물이었던 미국 박물관에 진입하는 사례는 원주민 정보원(native informant)이 아니라 동료 학예사(co-curator)로서 전문가적 권위를 공유함을 의미한다(Clifford 1997: 210-211).

두 번째 유형의 접촉작업과 관련해서는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A History of the World in 100 Objects)』에 언급된 사례가 그 단순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맥 그리거 당시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이하 ‘BM’) 관장은 시바와 파르바티 조각상(Shiva and Parvati Sculpture) 같은 힌두 조각상 앞에 가끔 과일이나 꽃이 공물로 바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종교적 성물의 경우 속세의 박물관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 해서 종교 성물로서의 기능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고 적고 있다(MacGregor 2012: 373).

세 번째 유형인 환수 문제, 즉 원주민 유물과 식민 역사를 둘러싼 협상 문제는 가장 어려운 접촉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식민 지배 상황에서는 식민지의 기물이 원 소재지에서 대도시 박물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미개한 원 소재지에 그대로 남겨질 경우 파괴될 운명에 처해지므로 지식

3) 원문의 ‘object’를 번역함에 있어 낯선 타자의 물건을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을 담아 ‘기물(奇物)’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본고에서 ‘기물’이라는 표현은 식민팽창주의 맥락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을 지닌 수집가, 보존가, 혹은 과학자가 이를 “구출(salvage)”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러한 수집 관행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Clifford 1997: 211).

보스트(Boast 2011: 56)는 박물관에 접촉지대 개념을 적용한 클리포드 이래 이러한 ‘포용(inclusionist)’ 혹은 ‘협업(collaborative)’ 프로그램이 접촉지대와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며 접촉지대에 내재한 비대칭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20세기 말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의 영향으로 서구 박물관이 명예롭지 못한 자신들의 근대 식민주의적 과거에서 탈피하고 포스트뮤지엄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등한 ‘타자’로 치부되었던 과거 피지배 사회 혹은 공동체를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협업 방식을 통해 ‘포용’하려는 노력과 연관된다. 보스트(ibid. 58)는 포스트뮤지엄이 긍정적 측면만 부각함으로써 접촉지대 개념을 전유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문화횡단과 더불어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주요 현상인 ‘자가기술민족지(autoethnography)’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기술민족지’ 혹은 ‘자가기술민족지적 표현(autoethnographic expression)’은 “식민화된 주체가 식민자의 표현과 맞물린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Pratt 2015: 36). 보스트(2011: 62)는 타자가 자신들의 고유한 표현 방식으로 자신을 표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복자의 관습적 표현 양식을 활용해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신식민주의적인 양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가기술민족지적 텍스트는 식민지 본국의 재현 양식을 전유해 제국의 정복에 대응하는 저항적 텍스트로 활용되어 “지식과 해석의 독점을 반복 재생산”(Pratt 2015: 32)하려는 제국의 기획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리우(Liou 2012)와 폴랑코(Polanco 2011)를 들 수 있다. 리우(2012: 809)는, 대만 원주민 작가 텐야거(田雅各, 원주민 이름 투오바시 타마피마⁴⁾)가 1980년대를 배경으로 저술한⁵⁾ 세 편의 단편을 어떤 측면에서 현대

4) 리우는 자가기술민족지를 논하는 글이므로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원주민식 이름(투오바시 타마피마)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텐야거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 텐야거라 지칭한다고 밝히고 있다(Liou 2012: 810).

5) 1980년대는 대만 원주민사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시기다. 원주민들은 빼앗긴 자신들의 경제권, 토지권과 더불어 명명권을 되찾기 위한 문화부흥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1994년 헌법에서 자신들을 ‘산지족’이라는 멸칭에서 ‘원주민’으로 재명명하는 성과를

소설이자 동시에 자가기술민족지적 소설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고, 호미 바바의 번역 불가능성 이론을 빌어 이들 소설의 각 서술자가 문화번역을 다루는 방식을 고찰한다. 문학비평, 인류학, 사회학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자가기술민족지 개념과 관련해 프렛의 정의를 채택한 이유로, 대만 원주민 지식인의 주체성과 저항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는 문화횡단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또한 프렛의 ‘자가기술민족지(적 표현)’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자가기술민족지적 요소(autoethnographic elements)”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주민 출신 지식인이 원주민 사회를 대상으로 한 민족지학 연구나 개인 서사, 여행기를 자가기술민족지의 예로 든다. 리우에 따르면 텐야거의 글은 식민 유산인 중국 현대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원주민은 관찰 혹은 기술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을 지닌 서술자의 위치를 점한다. 이야기는 중국어로 기술해 나가되 원주민의 주체성과 지배 사회/문화와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식민 지배자에게는 “이국적(foreign)”이나 작가/서술자/원주민 입장에서는 자가기술민족지적인 이름이나 용어, 표현을 사용한다. 이국성의 유지를 위해 중국식 이름과 원주민식 이름(음역해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병기한다. 또한 원주민 사회의 유머나 풍자적 표현을 완벽한 중국어가 아닌 일종의 “혼성화(creolized)”된 원주민식 중국어로 번역한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원주민 신화와 전설 등은 구전되어 온, 혹은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새겨진 원주민 역사와 문학을, 글로 다시 새긴 것으로 그 자체로 자가기술민족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폴랑코(Polanco 2011)는 탈식민주의적 번역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가기술민족지를 논한다.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가 호주식 영어로 저술한 『이야기치료의 지도(Maps of Narrative Practice)』(2007)의 일부 발췌 부분을 콜

언는다. 이는 토착민 입장에서 주체성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네덜란드, 스페인을 포함한 서구와 중국, 일본 등이 ‘문명화’를 외치며 사세기 동안 대만 원주민을 식민화 및 동화시키려 했던 과정에서, 청 왕조는 원주민을 ‘평지족’과 ‘산지족’으로 구분했다. 이들 용어는 ‘숙번(熟蕃)’과 ‘생번(生蕃)’이라는 용어와도 호환했는데 전자는 평지에 사는 동화된 원주민, 후자는 산에 사는 길들여지지 않은 원주민을 지칭한다. 일본은 인류학자들의 체계적인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원주민을 공식적으로 9개 종족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러한 용어를 영속화시켰다. 원주민은 낙후 혹은 지체된 사회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며 제국에 대한 충성을 요구받았다(Liou 2012: 807-808).

롬비아식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는 번역자가 최대한 비가시성을 유지함으로써 ST 저자의 권위를 살리고자 하는 번역 방식이 식민화된 텍스트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즉, 맥도날드나 나이키 등 북미 브랜드에 의한 전세계 “북미화(North Americanizing)” 및 그에 따른 식민화와 동일한 기제가 작용한다고 보고 포스트모던 번역학을 바탕으로 한 서사 관행의 탈식민화를 꾀한다. 그는 라이트(Wright)가 괴테의 『파우스트』 번역 시 채택한 ‘세폭화(triptych)’, 즉 세 가지 다른 전략으로 나란히 번역을 진행하는 방식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한다. 폴랑코는 특히 ‘팝 번역(pop translation)’ 전략이 흥미로웠다고 말하는데, 이는 스타워즈나 롤링 스톤스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대사, 팝송 등 대중문화적 요소를 빌려와 괴테의 입에 누군가 이들 단어나 표현을 “넣고” 있음이 명백히 보이도록 함으로써, 번역가의 조작 및 해석이 가해졌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폴랑코의 세폭화는 i) 축자역본과, ii) 가르시아 마르케스(García Márquez),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같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이 쌓아 올린 ‘표현의 집(House of Words)’에서 빌어온 라틴 아메리카식 단어와 표현을 원저자 마이클의 입에 투입한 탈식민화된 번역본, iii) 두 번째 스페인어 번역본이 영어로 다시 “여행”한 역번역본으로 구성된다. 번역본 ii)는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숨결과 자유와 표현을 다시 돌려주며 “재저술(re-authoring)”된 변형 텍스트(alter-text)로, 재저술 행위는 각고의 노력을 요하는 ‘중층 번역(thick translation)’(Appiah 1993)의 일종이다. 이러한 자가기술민족지적 시도로 번역된 결과로서의 서사는 혼종성(hybrid)을 띤다.

한편 스티지(Sturge 2007: 164-165)는, 박물관을 접촉지대로 보는 관점을 번역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클리포드의 이러한 접근법은 중심과 주변부라는 이분법적 구분, 즉 단순 ST-TT 모델을 탈피해 전시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으로든) 참여하는 문화 내에서의, 그리고 문화 간의 복잡다기하고 풍부한 박물관 번역의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박물관은 복합모드가 작용하는 공간으로 언어적 측면의 번역은 물론, 이문화 표상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번역 간 상호관계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박물관은 자국화, 이국화, 유사성의 발견, 극도로 다른 차이점 주장 등 다양한 번역 전략을 보여준다.

특히 번역 전략의 다양성과 관련해 스티지(Sturge 2007: 165)는 그린블라

(Greenblatt 1991)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린블랏은 전시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며 ‘경외(wow)’와 ‘공명(resonance)’이라는 한 쌍의 용어를 제시한다. 전시품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경외’ 전략은 부티크 조명 등의 장치를 활용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경탄에 찬 시선을 유도하며 은유적 읽기, 그리고 민족지학적 번역 및 문학 번역과 연관된다. 반면 ‘공명’ 전략은 보편성에 중점을 두며 표제(label)나 설명문을 통해 맥락을 설명하므로 일종의 중층 번역과 제유적 읽기가 발생한다. 이는 이국화와 자국화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연상시키며 박물관별로는 어느 한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경외적 요소만을 강조해 유물의 탈맥락화, 탈역사화가 발생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2006년 파리에 개관한 케 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을 들 수 있다. 이 박물관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민 박물관들로부터 그 소장품을 계승했다. 이러한 식민 유산을 극복하며 탈식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동 박물관은 심미적 기준을 유물 전시의 기본 원리로 채택했다.⁶⁾ 이에 따라 유물 관련 정보를 최대한 간결하게 제시하거나 생략했고 그 결과 유물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이 제거됐다. 이는 전시물에 담긴 식민 지배의 기억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읽힐 여지가 있다(김용우 2012: 65-70).

한편 라오(Liao 2015)는 접촉지대로서 박물관 개념을 적용해, 스코틀랜드 사진작가 존 톰슨(John Thomson)이 19세기 중국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들을 전시한 사진전을 고찰했다. 영국에서 열린 이 순회 전시는 영문과 중문으로 설명문을 제공했는데 분석 결과 이 두 언어본 사이에는 특기할만한 차이점이 존재했다. 원문인 영문 텍스트에서는 “이국적(exotic)” 중국을 전경화시킨 데 반해 중문 번역문에서는 이 전설적인 사진작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영문에는 톰

6) 유럽의 인류학박물관은 탈식민주의적 흐름 하에서 식민지 유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며 그 타개책으로 심미화 혹은 유럽화(Europeanization) 전략을 취했다. 전자는 유물의 역사적, 인류학적 맥락은 삭제한 채 심미적 가치만 부각함으로써 보편적 미술사에 이들을 편입시켜 식민지적 과거를 지우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유럽의 정치, 경제적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럽 공통의 역사 및 문화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이다(김용우 2018: 99-101).

슨이 냉정한 제국주의자의 시선으로 중국인을 인종 “표본(specimen)”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언급한 반면 번역문에서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폐쇄화된 청왕조에 동정어린 시선을 보낸 사진가로서의 중국 내 그의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두 언어의 설명문 간에 서로 다른 서사가 구축되었다고 본다.

3. ‘접촉’ 관점에서의 NRICH 사업

3.1 상호주의의 추구

NRICH 사업은 2002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4기에 이르러 현지 조사 시 우리 측 전문가와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가 투입되는 형태의 체계적인 학술 조사 체계가 갖추어졌다. 즉,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에서 본격적인 접촉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박물관 측에서 먼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4-15), 사업 초기에는 해외 박물관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34). 이는 박물관 현지 조사가 곧 또 다른 형태의 접촉작업, 즉 환수 요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 취득한 문화재를 원소유국으로 모두 반환할 경우 유럽과 북미의 주요 박물관은 “대량 붕괴(decimation)” 사태를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Sturge 2006: 436).⁷⁾

7) 근대 서구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하면 세상은 중심(metropole/masculine/white)과 주변부(periphery/feminine/nonwhite)로 나뉜다(Pratt 1992, Boast 2011: 57 재인용). 서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제국 변방으로의 여행 결과 그 기념품으로 획득한 주변부의 기물을 박물관에 전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자(colonizers)’와 ‘피식민자(colonized)’의 관계는 ‘여행하는 자(travellers)’와 ‘여행되는 자(travelees)’로 표현되기도 한다(Pratt 2015: 35; Liou 2012: 809). 한국은 서구의 실질적인 식민 지배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탈아입구’를 표방했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백인과 유색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동아시아의 주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유물의 ‘전위’가 주로 신제국주의시대와 한국전쟁기 여행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맥락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동 사업을 통해 실제로 환수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로(본고 3.3 참조)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가 아닌 한 환수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NRICH 역시 해외에 소재한 모든 한국 문화재를 무조건 환수하지는 입장보다는 현지 박물관에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이난영 2006: 333). 즉, 문화재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 결과가 원소유국으로의 환수가 됐든 현 소재국에서의 활용이 됐든, 전자는 반환 과정에서 관련국 간 “깊은 대화”(국립문화재연구소 2015a: 14)가 이루어지며 후자는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ibid. 16) 유물이 전시 및 교육에의 활용 등을 통해 관람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접촉작업’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RICH 사업은 박물관 컬렉션으로 문화 간 대화 촉발된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 시대 제국의 주변부에서 중심이라는 일방적 흐름을 타고 박물관을 최종 종착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품이 지속적 접촉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 관계에 있어야 한다. NRICH는 동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재의 조사, 전시, 교육에 있어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34). 해외 박물관 측은 한국 전문가를 통해 유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유물의 보존 처리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수장고 보관 유물까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도록 형식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현지 언어로 번역까지 한 결과물이 주어진다. 한국 측에서는 우리 문화재의 가치 인식 제고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 증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지식이나 정보를 교정하며(본고 4장 참조) 우리 입장을 반영해 기술한다. 즉, 존재하되 들리지 않던 우리의 목소리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사업은 클리포드(1997)가 말한 상호주의 구축을 통해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해결하는 구조가 부분적으로나마 구현된 사례로 간주해 볼 수 있다.

LACMA 현지 조사 후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는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 사업을 통해 상호 이익을 성취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이번 현지조사를 평가…… 단순히 연구소의 일방적인

자료 획득이 아니라 한국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학습되는 기회이기도 해서 앞으로 LACMA 한국문화재 보존·관리 및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32).

3.2 도록 형식의 이언어 보고서 - 서구 지적 도구의 전유

NRICH 사업에서 특히 특기할만한 사항은 보고서를 이언어로 발간했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지속적으로 이언어로 발간된 사례는 드물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26-28).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어 원문을 무조건 세계어로서의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 박물관이 소재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⁸⁾ 이러한 번역 전략은 소장품을 매개로 한 양 문화 간 대화를 보다 촉진시키며 박물관이 접촉지대로 작용하는 데 기여한다.⁹⁾

조사 보고서는 본문이 유물 도판과 설명문으로 구성된 도록(catalogue)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회당과 자가기술훈민족지적 관점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도록은 많은 작품을 한 공간에 전시하는 근대적 형태의 전시회라는 제도의 발생과 함께 탄생한(김석모 2016: 118) 서구의 지적 도구이므로 지배 문화에서 전해진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해 창안한다는 ‘문화회당’(Pratt 2015: 32-33)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근대의 중심지였던 서구 박물관이 한국이라는 변방의 ‘타자’를 재현한 방식¹⁰⁾에 “대응 혹은 대화”하며 그 타자가 기

8) NRICH 웹사이트에 수록된 ‘연구성과’ 기준,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기관이 소재한 국가는 미국(11개 기관), 영국(2), 일본(7), 독일(3), 프랑스(2), 러시아(2)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22). 이는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목록을 연상시키며 문화재 반출이 힘의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방증한다.

9) 보스턴박물관의 우통(Tung Wu 2004: 33) 큐레이터, 그리고 포틀랜드박물관의 브라이언 페리소(Brian J. Ferriso) 관장(국립문화재연구소 2015c: Foreword)과 매리베스 그레이빌(Maribeth Graybill) 아시아미술부 큐레이터(ibid. 21)는 이언어로 출판되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학자 및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10) 근대 서구 도록 도입부에 수록된 논고는 어떤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봤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유럽의 한국 도자 컬렉션 도록은 김윤정(2018: 33-36)을,

술한 텍스트라는 측면에서 ‘자가기술민족지적 텍스트’(ibid. 36)라고 볼 수도 있다.

NRICH 보고서는 우리 정부 발간물인 만큼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로마자를 표기했는데 로마자 표기와 주체성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또한 일종의 전유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20세기 초에 미국인 선교사 맥퀸과 하버드에서 일본사를 전공한 라이샤워가 공동 작성한 맥퀸-라이샤워(McCune-Reischauer, 이하 ‘MR’) 표기법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라는 서구의 지적 도구를 우리식으로 전유해 주체적으로 고안한 문광부 표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그 결과 해외 박물관에서 NRICH 보고서 내용을 웹페이지에 수록하며 우리식 로마자 표기를 그대로 표기해 MR 표기와 문광부 표기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¹²⁾ 로마자 표기는 고유명사의 표기뿐만 아니라 특히 용어의 음역과 관련해서도 중요성을 지니는데, 아래 예에서 보는 것처럼 NRICH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박물관 웹페이지에 수록되며 한국 용어가 전파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The Nong (stacking chest)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ior furniture along with the Jang (cabinet). The Nong is different from the Jang in that it consists of separable chests stacked together. The legs are decorated with scroll patterns(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웹사이트, 밑줄은 필자의 것).¹³⁾

근대 미국의 한국 도자 컬렉션 도록 관련해서는 김윤정(2016: 299-304)을 참조하라.

- 11) 로마자 표기와 주체성에 관한 논의는 서반석(2000), 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변천에 대한 논의는 양병선(2000)을 참조할 수 있다. 김정우(2008)는 번역의 관점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고찰하는데 “언어의 접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프랫이 ‘접촉시대’라는 용어를 ‘접촉언어(contact language)’라는 언어학적 개념에서 따왔다(2015: 34)는 사실과 접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 12) 예일대 바이네케도서관(Beinecke Rare Book and Manuscript Library) 보고서 ‘일러두기’를 보면 “도서관에서는 맥퀸-라이샤워…… 방식으로 한국유물명을 표기하고 있으나 영문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측의 동의를 얻어 영문 표기 방법을 변경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웹사이트에 NRICH 보고서의 영문 번역문 내용을 그대로 각 문헌 소개 페이지의 ‘개요(Abstract)’ 부분에 수록하며(예: <엄씨효문청행록>(YAJ K5b.3), <지도첩>(YAJ K.4.1) 등), 로마자 표기는 다시 MR 표기로 수정하되 ‘이칭(Alternative Title)’에 문광부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기념품처럼 원주민의 단어를 훌쩍리던 서구 제국주의의 인류학적 관행(Sturge 1997: 31)과 달리,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 음역을 통해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본격적인 유물 설명에 앞서 각 박물관별 조사 경위 및 한국 문화재 소장 경위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두 문화 간 “접촉의 역사(contact history)”(Clifford 1997: 202)를 응축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이먼(Simon 2013: 181)은 번역(통번역을 아우르는 개념)이 접촉지대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NRICH 사업에서도 박물관 현지 조사 시 통역이 수반됐는데 관련 사항을 보고서의 조사 경위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관련 분야 한국인/계 전문가 혹은 NRICH 연구원이 통역을 맡았다(부록 <표 1> 참조). 유물의 연대나 진위 등을 밝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 학자 내지 연구자가 저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26) 통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즉 우리 측의 관점을 반영해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성 확보와 통역 간의 연관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통역자의 전문성에 따라 접촉작업의 범위와 밀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LACMA의 경우 복식 전문가의 현지 조사 시 미술 전공자가 통역을 맡아 박물관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현장에서 주제별 강의를 진행하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통역자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26).

보고서 번역의 경우는 브루클린박물관(Brooklyn Museum)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번역자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번역은 크게 전문 번역가나 업체에 의주를 준 경우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이나 박물관 측 한국계 직원이 내부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3) NRICH 보고서에는 <홍칠나전부귀장수문농>(W.47A, B-1912)이라는 명칭으로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의 국문 ST는 다음과 같다.

농은 장과 더불어 옷을 보관하는 내실가구를 대표한다. 농은 위아래 짝이 분리되므로 분리되지 않는 장과는 구별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250).

3.3 환수 - “역사적, 정치적, 도덕적” 대화

조계종에서는 보스턴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이 소장하고 있는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구>(39.591 a-f)에 대해 2009년 반환 요청을 했고 박물관에서는 그 종교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일부를 반환하는 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박물관 웹사이트의 해당 유물 ‘기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란을 보면 한국 관련 기관과의 논의 결과 내용물과 사리구를 분리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고 이에 따라 한국실에 그대로 전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 있다. 문화재 환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NRICH 사업은 이렇듯 까다로운 유형의 접촉작업이자 “역사적, 정치적, 도덕적(historical, political and moral)”(Clifford 1997: 192) 대화를 통해 문화재 환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애틀박물관(Seattle Art Museum)의 <덕종어보>(63.59ACC)는 한국전쟁 때 유출되었는데 박물관 현지 조사를 통해 그 실체와 소장 경위가 확인되었고 박물관 및 기증자 유족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반환이 성사됐다(NRICH 2015a: 발간사).¹⁴⁾ NRICH 사업이 반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다.

포틀랜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오불회도>는 불법 반출된 것이 분명한 문화재였기 때문에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원 소장처인 송광사로 반환됐다. 조계종에서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 정보를 담아 영어로도 번역한 백서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⁵⁾ 이는 번역물이 역사적 증거 자료로서 향후 환수라는 접촉작업에 기여할 여지가 큼을 보여준다. 유물 반환 전 박물관에서는 이 불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 ‘오불회도, 시간 속 여정(Five Buddhas: A Korean Icon’s Journey Through Time)’을 2016년 후반 개최하기도 했다.¹⁶⁾

-
- 14) 덕종어보 환수 당시 진품으로서의 그 가치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노형석 2017). 이와는 별개로, 본고에서는 접촉작업의 한 유형으로서의 환수에 초점을 맞추며, 해당 유물이 현재는 반환되었으나 한때 시애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유물의 ‘생애’를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NRICH 사업 보고서의 가치에 주목한다.
- 15) 국영문본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불회도>는 증보판(2016년판) 기준 국문본은 115쪽, 영문본은 94쪽에 수록되어 있다.
- 16) 전시 안내문에도 NRICH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난 문화재임을 파악하게 된 경위가 나와 있다(포틀랜드박물관 2016).

4. NRICH 사업의 “자가기술민족지적 요소”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리우(2012)의 주장에 따라 “자가기술민족지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는 주체성(4.1)과 저항(4.2)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4.1 주체성 확보에 따른 권위와 저자권(authorship)의 공유 혹은 이전

NRICH 사업을 자가기술민족지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보고서가 각 박물관별로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록 <표 2> 참조). 즉, 보고서 발간이 종착점이 아니라 또다른 접촉작업의 시작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지 조사라는 이전의 접촉작업을 통해 박물관 측에서 보고서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조사 보고서가 프랫(Pratt 2015: 37)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복자의 관습적 표현 양식”인 도록 형식을 띠며 번역을 통해 “알파벳 자모를 활용한 글쓰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박물관 웹사이트에 그 내용이 활용되며 제국의 “문자 문화계에 진입하는 지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RICH 사업이 자가기술민족지로서 전복적 번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데는 “인류학적 객체화(anthropological objectification)”(Liou 2012: 807), 즉 인류학적 관찰 내지 기술 대상이 아니라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은 한국인 학자 및 연구자를 주축으로 했으며 일부 한국계 큐레이터가 참여한 사례가 있다.¹⁷⁾ 사진 또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¹⁸⁾ 문화재 전문 한국인 사진작가가 촬영

17) LACMA 회화와 BM 화폐 부분은 해당 박물관 측에서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자의 경우만 서구의 관점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LACMA 회화의 경우, 박물관 측에서 제공한 원고를 전적으로 수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원고를 집필한 인력이 한국 학자(일반 회화 김현정 큐레이터, 불교 회화 정우택 교수)라는 점에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16) 한국의 관점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8) 일례로 오리건대박물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박물관 측 사진작가가 촬영을 했지만

영했다. 각 박물관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지만 NRICH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린치(Lynch 2014)가 언급한 ‘보여주기식 참여(participation-lite)’ 혹은 ‘보여주기식 권한 부여(empowerment-lite)’가 아닌 보다 전폭적인 차원에서 의 관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아와 함께가 아닌, 자아를 위해 원천문화, 즉 타자가 무대에 올려진다는 신식민주의적 한계(Boast 2011: 63)를 극복하며, 실질적 의미에서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의 확보는 서구가 독점하고 있던 권위와 저자권이 이동하거나 공유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지위의 전복이 이뤄지기도 한다. 일례로 NRICH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SL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다. BM처럼 한국어, 영어 별권으로 발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물 표제(명칭, 시기, 규격, 소장번호 등 간략한 정보로 구성) 등의 짧은 정보는 한국어가 상단, 영어가 하단, 그리고 유물 설명 등 긴 텍스트는 한국어와 영어가 각기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다.¹⁹⁾

보고서 내용을 박물관 웹사이트에 수록함에 있어, 해당 박물관 측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설명 없이 NRICH 보고서 내용만 게재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단독 권위”(Sturge 2006: 438)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한국어 자료가 그대로 웹사이트에 수록되는 경우는 원천문화의 존재를 보다 잘 인식하게 하는 효과 또한 지닌다.

유물 설명문을 박물관 웹사이트에 그대로 혹은 수정해서 게재하고 있는 박물관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영국박물관²⁰⁾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조사 첫날 우리 측 사진작가가 한국 문화재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촬영법을 박물관 측 사진작가와 함께 논의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5b: 10).

19) 해외 박물관 관계자가 쓴 글의 경우 영어가 SL임에도 한국어가 여전히 왼쪽에 자리한다(각기 2009년과 2012년 발간된 코넬대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보고서만 예외적으로 해당 박물관 관장의 영문 발간사/인사말을 왼쪽에, 그리고 번역본인 국문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지배적 위치 점유로 인해, 박물관 관계자가 이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인 경우 어떤 언어가 SL인지 모호해져 한국어 텍스트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서야 한국어가 번역문임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20) 보고서는 ‘British Museum’을 ‘영국박물관’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대영박물관’이라는 번역어가 지니는 ‘대영제국’과의 연관성을 인지한 탈식민주의적 번역

이미 보고서 정보를 박물관 소장품 DB에 입력하고 디지털 사진 이미지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할 예정임을 명시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6). 박물관 웹 페이지를 보면 각 유물 설명 페이지의 ‘큐레이터 해설(Curator’s comments)’란에 NRICH 보고서에서 발췌한 한국어 유물 설명과 영어 번역문만이 수록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²¹⁾ 이는 서구 전문가의 목소리만 들리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원주민의 목소리(native voice)”를 포함함으로써 문화번역과 관련해 서구 박물관의 단독 권위를 저해하는 효과(Sturge 2006: 438)를 발휘한다.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V&A)은 웹사이트 유물 설명 페이지에 출처를 NRICH 보고서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보고서의 영문 번역문 내용만 게재되 영국식 철자(centre, colour)로 바꾸거나 윤문을 한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아미타여래도>(FE.108-1970), <홍칠나전부귀장수문농>(W.47A, B-1912) 등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청자상감유로수금문기사명발>(C.578-1918)과 같이 문구가 약간씩 수정된 경우도 있다.

미국 오리건대박물관의 경우는 ‘관련 출판물(Related Publications)’ 목록에 NRICH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으며(예: 1964:3.11) 보고서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서명(Title)’에는 ‘Korean Art Collection in the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KNRICH)’이라고 NRICH 발간물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유형(Type)’은 ‘내부 출판물(internal publication: catalogue)’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발행처(Publisher)’가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저작권의 공유처럼 읽힐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단순 오기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4.2 전복적 서사를 통한 저항 - 예속적 역사관의 전복

이번 절에서는 NRICH 사업이 제국의 텍스트와 어떻게 “대응 혹은 대화(in response to or in dialogue with)”(Pratt 1991: 35)하며 식민 담화의 재생산을 방

어라 할 수 있다.

21) 그 예로 <백자청화김주광묘지>(1997,0722.1-2), <오봉도삼병>(1952,1215,0.1), <백자 태호>(1946,0720.3) 등을 들 수 있다(2022/1/30 접속).

지하는 전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연속적 역사관의 전복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

근대 서구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주변부 문화로 여겨졌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한국 유물을 최초로 전시한 보스턴박물관은 에드워드 실베스타 모스(Morse)가 1892년 5천여 점의 소장품을 박물관에 매각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21). 보스턴박물관이 1901년 출판한 『모스 컬렉션 도록(Catalogue of the Morse Collection of Japanese Pottery)』을 보면 본격적으로 일본 도자기에 대해 기술하기 전에 도입부에서 한국 도자기에 대해 일곱 쪽에 걸쳐(25~31쪽) 약간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원래 일본 도자기 수집이 목적이었던 모스가 일본인 친구에게서 한국의 영향이 있었음을 듣고 한국 토기와 도자기를 곁들이로 수집했기 때문이다(ibid.).

또한 예일대 바이네케도서관(Beinecke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이하 ‘예일대도서관’) NRICH 보고서와 도서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한국 고서는 예일일본협회(Yale Association of Japan, 이하 ‘YAJ’) 장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당시 예일대 동아시아 컬렉션 큐레이터였던 역사학자 아사카와 간이치(朝河貫一)와 예일대 일본인 동창회장단이 1920년 처음 그 아이디어를 발의한 것으로, 동경대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에게, 동아시아의 풍부한 문화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한중일 삼국의 자료를 선별해 구성하도록 맡겼다. 한국 고서 및 문서 44종을 포함한 이 컬렉션은 관련 도록²²⁾과 함께 1934년 예일대도서관에 편입됐다. 제목을 보면 동아시아가 아닌 일본의 고대 문화와 문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로이타는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 한국사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수립된 조선사편수회를 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하다(국사편찬위원회 2022).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고려할 때 YAJ 장서 중 한국 고서만 별도로 분리해 묶은 NRICH 보고서는 연속적 역사관에서의 독립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연구자들이 그 내용을 저술하고 한국계 사서가 번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체적 독립으로 볼 수 있다.

22) 도록 제목은 *Catalogue of Books, Manuscripts and Other Articles of Literary, Artistic and Historical Interest, Illustrative of the Culture and Civilization of Old Japan*이다.

4.2.1 시대 및 시기 정보의 교정 - 전경화된 ‘낙랑’

유물의 표제 정보에 들어가는 시대 구분은 한 단어 혹은 몇 단어에 불과한 매우 간략한 정보지만 이는 해당 저술자 혹은 기관의 역사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말모양 허리띠 장식>(이하 <마형대구>, 69.125.11)은 1987년 한국 특별전 도록(*Korean Art: From the Brooklyn Museum*)에서는 그 시기를 2세기로 특정하고 있으나(Moes 1987: 24), 현재 박물관 웹사이트에서는 3세기(원삼국 혹은 삼국시대)로 수정되어 있다. 이는 “원삼국 3세기 또는 삼국 5세기”로 특정한 NRICH 보고서(2006: 176)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아미타삼존도>(61.204.30), <청자연꽃모양주전자>(56.138.1a-b) 등 일부 유물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 박물관이 NRICH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웹사이트에 수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참고 혹은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마형대구>의 경우는 박물관의 해당 유물 페이지에 NRICH 보고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의 초점이 많이 다르다. 보고서에는 ‘낙랑’이나 중국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일본에서 유사 유물이 발견된 예를 들며 한반도에서의 전래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에 반해 박물관의 해당 유물 페이지에서는 제작지를 “Lelang, Korea”로, 왕조를 “Han Dynasty”로 수록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도 우리식의 “Nangnang”이 아니라 “Lelang”으로 되어 있고 낙랑이란 용어에 대해 아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부분에 걸쳐 길게 부가 설명(밑줄 부분)을 덧붙이고 있다.

This belt hook in the form of a horse comes from ①Lelang, one of three commandaries, or colonies, that the Chinese established in northwest Korea during the Han dynasty and that lasted more than four hundred years (108 B.C.E. - 313 C.E.). It was either imported from China or cast by an immigrant Chinese craftsman living in ②Lelang, a profitable trading center selling Chinese goods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the islands of Japan. The hook for the belt protrudes from the chest of the beast. A stud on the back of the hook engaged a hole in one end of the belt or robe in the style of similar Chinese belt hooks. The horse's

shape is reminiscent of depictions in the nomadic Scytho-Siberian culture of Central Asia(브루클린박물관 웹페이지 <마형대구> 설명, 밑줄은 필자의 것).

②와 같이 한중일 3국을 잇는 교역중개지²³⁾로서의 역할도 언급하고 있으나 ①을 보면 낙랑을 “식민지(colony)”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랑군 평양설²⁴⁾을 확정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이 설명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박물관의 1987년 전시 도록과 표현이 동일하거나 유사해²⁵⁾ 박물관이 낙랑에 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전시 도록에 이러한 연속적 역사관이 반영된 것은 우리의 주체적 입장이 배제된 근대의 역사관이 거의 ‘화석화’된 채로 당시까지도 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이다.²⁶⁾ 동 전시는 “한국미술

- 23)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의 경우 표제어 ‘대구’와 관련해 “원삼국 시대가 되면 낙랑을 매개로 하여 한의 곡봉형 대구 완제품이 일부 전해진다”는 설명을 실고 있다.
- 24)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의 위치에 관해서는 낙랑 평양설, 낙랑 요동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식민사학이라 비판받기도 한다. 즉 일제가, 한반도가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후 313년까지는 한사군의 영향 하에 있었고 기원후 4세기부터는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라 설치되었다는 주장, 즉 한국 역사의 타율성론을 주장하기 위해 평양의 낙랑유적을 발굴했다는 것이다(이기환 2007).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서는 “낙랑군 등의 존재는 한의 직접적 지배라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文化中繼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라고 적고 있다.
- 25) i)과 c), ii)와 ㄴ), iii)과 ㄷ), iv)와 ㄱ)의 내용이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전시 도록(1987)	현재 웹페이지(2021)
i) A stud on the back of the body of the belt hook engaged a hole in one end of the belt	ㄱ) imported from China or cast by an immigrant Chinese craftsman living in Lelang
ii) The hook protruding from the chest	ㄴ) The hook for the belt protrudes from the chest
iii) Scytho-Siberian culture of Central Asia	ㄷ) A stud on the back of the hook engaged a hole in one end of the belt
iv) imported from China...cast by an immigrant Chinese craftsman living in the Lo-lang colony	ㄹ) Scytho-Siberian culture of Central Asia

26) 1987년 도록의 ‘감사의 말(Acknowledgments)’을 보면 유물명 번역과 불교 회화/조각 자료 조사에 한국인/계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지만 도록의 전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도 연방기구인 미국국립예술기금

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조명하며 대중들에게 브루클린박물관의 폭넓은 한국유물에 대한 인지도를 재고시켰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18)는 의의가 있지만, ‘Land of the Morning Calm: Korean Art at the Brooklyn Museum’이라는 전시 명칭에서 보듯 근대에 만들어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다. 또한 서설(Introduction)에는 ‘The Uniqueness of Korean Art’라는 부제를 붙여 한국 미술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목차를 보면 낙랑(The Chinese Colony at Lo-lang), 가야,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로 구분해 한국의 기원이 중국 식민지인 한사군(낙랑)이라는 일본 식민사관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시대 구분²⁷⁾은 동 도록의 저자인 당시 동양부 큐레이터 로버트 모즈(Robert J. Moes)가 일본 미술 전문가였다는 데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²⁸⁾

낙랑을 우리 역사 시대 구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포틀랜드박물관 NRICH 조사 보고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의 조사 경위 및 의의 부분을 보면 포틀랜드박물관을 “미국 선주민 문화 컬렉션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국립문화재연구소 2015c: 8) ‘인디언’이나 ‘원주민’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받았다.

- 27)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하며 재개관 시 1층 고고관을 11개실(도입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초기철기, 원삼국,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통일신라, 발해)로 구성했다(홍진근 2005). 그런데 2007년 아시아팀 출범을 앞두고 낙랑을 어디에 편입시켜야 할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했다(자세한 내용은 이기환 2007 참조). 박물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1층 선사·고대관은 구석기실, 신석기실, 청동기/고조선실, 부여/삼한실, 고구려실, 백제실, 가야실, 신라실, 통일신라실, 발해실로 구성되어 있다. ‘고조선’이라는 시대 구분이 전시실 구성에서 보다 명확해진 것을 볼 수 있고 낙랑 유물은 부여/삼한실에서 전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국보인 ‘평양 석암리 금제 띠고리’는 ‘국적/시대’는 ‘한국-낙랑’으로 하여 부여/삼한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 28) 모즈는 브루클린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에 대한 관심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18). 그러나 1987년 도록의 서설에 언급된 지명 표기를 살펴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Amnok...(called the Yalu by the Chinese)”, “Tuman...(Tumen in Chinese)”라고 하여 한중 간에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한국식 로마자 표기를 전치시킨 데 반해, 세 차례 등장하는 동해는 계속 “Sea of Japan”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이러는 유럽 중심 용어 대신 ‘선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2] 포틀랜드박물관 한국문화재 분류 현황을 보면 시대 구분(선사, 낙랑,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 미상)에 ‘낙랑’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도 ‘Nangnang’이 아닌 ‘Lelang’으로 되어 있다(ibid. 14). 표를 보면 ‘선사’와 ‘낙랑’으로 분류된 유물은 0건이므로 표를 삼국시대부터 시작하거나²⁹⁾ 낙랑 항목을 삭제해도 됐을 것이다. 조사 경위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에서 기술한 부분인데 이러한 시대 구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일러두기’에서 밝히고 있듯 “유물의 분류는 시대별, 분야별로 수록하되, 소장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편집에 반영”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낙랑의 전경화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본 위 사례에서와 같이, 시대 구분은 저술자의 역사관을 반영하게 된다. NRICH 사업은 현지 조사를 통해 유물의 시기 및 국적상의 오류를 밝히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 번역을 통해 보다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을 다른 국가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기존의 식민주의적 담화를 전복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박물관별로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교정’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4.2.2 한자 문화권이라는 굴레에서의 탈피

한자 문화권이라는 구분 때문에 한국이 중국 문화에 종속된 것처럼 기술되던 기존 서사가, NRICH 사업 하에서 주체성을 갖고 기술할 경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코넬대박물관의 <용수전각문거울>(65.327)을 예로 들어 보자. 해당 유물에 대해 박물관에서 기술한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살펴보면, 당시의 “수많은 문화 간 교류와 외교 관계를 통해(through numerous cross-cultural interactions and diplomatic exchanges)”라는 표현으로 양방향적 흐름을 암시하면서도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흐름, 혹은 영향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29) 오리건대박물관 조사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15b: 12)는 시대를 삼국시대에서 시작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로 구분하고 있다.

알 수 있다.

... The design was influenced by Chinese mirrors of the Jin dynasty that depict the Tang dynasty emperor Minghuang (Xuanzong) journeying to the moon at the time of the mid-autumn festival...The story was remade in popular drama and, along with many other aspects of Chinese culture, entered Korea through numerous cross-cultural interactions and diplomatic exchanges in northeast Asia that occurred during this period ... (코넬대박물관 웹사이트 <용수전각문거울> 설명).

이에 반해 같은 유물에 대한 NRICH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적시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구도와 도상을 변화, 발전시켰음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고려의 용수전각문경龍樹殿閣文鏡은 중국 당대唐代의 월궁경月宮鏡 계보에 속하는 금대金代의 월궁인물고사경月宮人物故事鏡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국의 월궁인물고사경月宮人物故事鏡과 구도와 도상에 차이가 있어 고려의 용수전각문경龍樹殿閣文鏡은 자체적으로 도안,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55, 밑줄은 필자의 것).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로는 코넬대박물관 조사 경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유물로 언급한(NRICH 2009: 22)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2002.006.002)를 들 수 있다. 박물관의 자체적 설명을 보면 ‘와질’, ‘연질’ 등의 우리 용어를 그대로 음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낙랑을 통한 중국 도자 기술의 직접적 유입을 언급하고 있다.

Direct ties with Chinese commanderies such as Nangnang (Chinese Lelang) in northern Korea during this period brought Chinese ceramic-making technology and improvements in firing techniques that permitted the production of soft stoneware, known as wajil, and true high-fired stoneware, called yonjil ... (코넬대박물관 웹사이트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 유물 설명).

반면 NRICH 보고서(2009)에서는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 없이 유물의 외형적 특징만을 기술하고 있다(182쪽 참조).

한편, 포틀랜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수백수백복자도>(2010.33)는 왕실 유물급 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15c: 12)임에도 박물관 웹사이트 개별 유물 페이지에서는 한국에서 한자를 쓴 역사 등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부분(전반부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The entire composition of this screen consists of variations on the Chinese characters for longevity (壽, su) and good fortune (福, bok), arranged in alternating horizontal and vertical rows. The characters are written with astonishing variety, drawing on a repertoire of archaic scripts used in China as far back as the fifteenth century BCE. Making witty reference to the pictographic origin of Chinese writing, some of the symbols incorporate stylized drawings of fish, birds, plants, or constellations. Korea adopted the Chinese language and writing system for formal purposes, such as religious and official documents, as early as the third century. Literary Chinese remained the principal language of the Korea's male scholarly elite until well into the twentieth century ... (포틀랜드박물관 웹사이트 <자수백수백복자도> 설명, 밑줄은 필자의 것).

반면 NRICH 보고서(2015c)에서는 한자 자체나 중국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고 조형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67쪽 참조).

NRICH 사업은 제국의 중심에서 비롯된 한국의 표상에 대응하며 문화횡단적 방식(Pratt 2015: 102)으로 “서사 관행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of narrative practices)”(Polanco 2011: 42)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는 NRICH 사업이 해외 박물관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클리포드의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시도했다. 근대 박물관은 소장 기능을 중심으로 하므로 강제로 변위된 타자의

문화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된 종착지 역할을 하지만, 접촉지대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 유물은 두 문화 간에 지속적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NRICH 사업은 사업의 주축이 되는 박물관 현지 조사 외에도 보존처리 지원 및 환수,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접촉작업이 발생했다. 양 기관, 더 나아가 양국 간 상호 이익 관계, 혹은 ‘상호주의’를 도모함으로써 동 사업은 근대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 하에서 들리지 않던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도록 형식으로 발간된 보고서는 우리의 주체적 입장을 담은 한국어 원문을 박물관 소재 국가의 해당 언어로도 그 내용을 번역해, 경우에 따라 근대 식민 담화 혹은 기록에 대응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본고는 NRICH 사업이 이러한 식민주의적 담화 전복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우선, 현재는 문화재청 산하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사업을 확대해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재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동 사업의 전복적 효과를 인지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출판된 사업 보고서뿐만 아니라 향후 작성될 도록 형식의 보고서 또한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박물관 및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목소리가 담긴 주체적 담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놓고 볼 때, 현재 해외 박물관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NRICH 사업 결과물과 관련해, 그 내용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나, 브루클린박물관처럼 일부 유물에 대해서만 NRICH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이 제대로 번역 및 표상될 수 있도록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연구자의 언어적 한계로 NRICH 사업을 영미권에 한정해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한국 문화재가 반출되어 있는 일본을 비롯해 다른 언어권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미국 코넬대학교 허버트 F. 존슨 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미국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b)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a) 『미국 시애틀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b) 『미국 오리건대학교 조던슈니처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c)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d) 『세계 속에 되살아난 우리 문화재 -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보존처리 지원결과 보고서』.
- 김석모 (2016) 「미술현상으로서의 제목」,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4: 101-124.
- 김성은 (2011) 「‘우리’와 ‘그들’의 접촉지대: 영국 인류학 박물관에서 보는 현대 미술」, 『역사와 문화』 21: 247-271.
- 김용우 (2012) 「식민주의의 그림자들 - 새로운 세계사와 서구 포스트-식민박물관의 경우」, 『코키토』 71: 49-76.
- 김용우 (2018) 「프랑스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MuCEM)의 지중해주의」, 『역사와 세계』 54: 93-118.
- 김윤정 (2016) 「근대 미국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 32: 291-320.
- 김윤정 (2018) 「근대 유럽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한국 근현대미술사학』 36: 29-59.
- 김정우 (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

- 연구』 9(2): 67-93.
- 박현주 (2021) 「국내 박물관 번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구 고찰 및 시론적 논의」, 『통역과 번역』 23(1): 57-86.
- 서반석 (2000) 「로마자 표기법의 식민성과 탈식민성」, 『창작과 비평』 109: 300-310.
- 양병선 (2000) 「국어의 영문표기 및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1(1): 145-167.
- 이난영 (2006) 「미국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 보스턴 미술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품을 중심으로」, 『상명사학』 10권 10, 11, 12 합권호: 317-334.
- 임형진 (2012) 「LACMA 한국문화재 조사 경위 및 의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2-39.
- 황혜성 (2016) 「국립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 포스트식민박물관의 음영」, 『미국사연구』 43: 217-252.
- Appiah, Kwame Anthony (1993) ‘Thick Translation’, *Callaloo* 16(4): 808.
- Avril, Ellen (2009). ‘The Context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Herbert F. Johnson Museum of Art, Cornell University’,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Herbert F. Johnson Museum of Art, Cornell University*, Daejeon: NRICH, 10-15.
- Boast, Robin (2011) ‘Neocolonial Collaboration: Museum as Contact Zone Revisited’, *Museum Anthropology* 34(1): 56-70.
- Clifford, James (1997) ‘Museums as Contact Zones’, in James Clifford (ed.)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P, 188-219.
- Eichman, Shwan (2010) ‘Korean Art at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U.S.A.*, Daejeon: NRICH, 12-23.

- Fischer, Felice and Hyunsoo Woo (2008) 'The History of the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U.S.A.*, Daejeon: NRICH, 8-23.
- Graybill, Maribeth (2015). 'A History of the Korean Art Collection at the Portland Art Museum',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Korean Art Collection in the Portland Art Museum, Portland, Oregon, U.S.A.*, Daejeon: NRICH, 17-21.
- Greenblatt, Stephen (1991) 'Resonance and Wonder', in Ivan Karp and Steven D. Lavine (eds)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42-56.
- Hammond, Ellen H. (2011) 'Korean Cultural Treasures in the Yale University Library',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Korean Rare Books and Manuscripts at Yale University: Korean Cultural Heritage in the Beinecke Rare Book and Manuscripts Library*, Daejeon: NRICH, 10-15.
-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6). *Stolen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Enlarged Edition)*, Seoul: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Kitagawa, Anne Rose (2015) 'Ten Symbols and Ten Kings: NRICH-supported Korean Painting Conservation Projects at the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Revitalizing Korean Cultural Heritage around the World: Selected Reports on Overseas Korean Collection Conservation Projects*, Daejeon: NRICH, 100-115.
- Liao, Min-Hsiu (2015) 'One Photo, Two Stories: Chinese Photos in British Museums', *East Asian Journal of Popular Culture* 1(2): 177-191.
- Liou, Liang-ya (2012) 'Autoethnographic Expression and Cultural Translation in Tian Yage's Short Stories', *The China Quarterly* 211: 806-826.
- Lynch, Bernadette (2014) 'Whose Cake Is It Anyway?: Museums, Civil Society and the Changing Reality of Public Engagement', in Lawrence

- Gouriévidis (ed.) *Museums and Migration: History, Memory and Poli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67-80.
- MacGregor, Neil (2012) *A History of the World in 100 Objects*, London: Penguin Books [강미경 역 (2014)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파주: 다산초당].
- Moes, Robert (1987) *Korean Art: From the Brooklyn Museum*, New York: Universe Books.
- Morse, Edward S. (1901) *Museum of Fine Arts, Boston Catalogue of the Morse Collection of Japanese Pottery*, Cambridge: The Riverside Press.
- Neather, Robert (2021) ‘Museums as Translation Zones’, in Esperança Bielsa and Dionysios Kapsaskis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306-319.
- Polanco, Marcela (2011) ‘Autoethnographic Means to the End of a Decolonizing Translation’, *Journal of Systemic Therapies* 30(3): 42-56.
- Pratt, Mary Louise (1991)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91: 33-40.
- Pratt, Mary Louise (1992/2008)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Routledge [김남혁 역 (2015) 『제국의 시선 - 여행기와 문화횡단』, 서울: 현실문화].
- Randaccio, Monica (2018) ‘Museum Audio Description: Multimodal and ‘Multisensory’ Translation: A Case Study from the British Museum’, *Linguistics and Literature Studies* 6(6): 285-297.
- Simon, Sherry (2013) ‘Translation Zone’,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4,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81-185.
- Sturge, Kate (1997) ‘Translation Strategies in Ethnography’, *The Translator* 3(1): 21-38.
- Sturge, Kate (2006) ‘The Other on Display: Translation in the Ethnographic Museum’, in Theo Hermans (ed.) *Translating Others II*, Manchester: St Jerome, 431-440.
- Sturge, Kate (2007) *Representing Others: Translation, Ethnography and the*

Museum, Manchester: St. Jerome.

Wu, Tung (2004)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Art Collection at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Korean Art Collection at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Daejeon: NRICH, 26-33.

<인터넷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22) <https://www.nrich.go.kr/kor/page.do?menuIdx=336>, 2022/1/23 접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https://portal.nrich.go.kr/kor/archeology/UsrView.do?menuIdx=&idx=5686&st_char=3&sk=, 2021/12/26 접속.

국사편찬위원회 (2022) 우리역사넷 '한국사 연대기 > 근대 > 조선사편수회',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403110&code=kc_age_40, 2022/1/14 접속.

노형석 (2017) '덕종어보는 짝퉁이 아닌 비운의 왕실유산', 한겨레 2017/8/27,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08430.html, 2022/1/16 접속.

대한불교조계종 (2016)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 <http://www.buddhism.or.kr/m/jongdan/sub3/sub3-1-3.php>, 2022/1/29 접속.

브루클린박물관 웹사이트 <마형대구> 설명, <https://www.brooklynmuseum.org/opencollection/objects/95649>, 2021/12/26 접속.

이기환 (2007) "'낙랑'이 한국사일까...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구성 고심', 경향신문 2007/2/16, <https://m.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0702161542471#c2b>, 2021/12/26 접속.

코넬대박물관 웹사이트 <용수전각문거울> 설명, <https://museum.cornell.edu/collections/asian-pacific/korea/mirror-dragon-tree-and-pavilion-design>, 2021/10/4 접속.

코넬대박물관 웹사이트 <조합우각형과수부장경호> 유물 설명, <https://museum.cornell.edu/collections/asian-pacific/korea/jar-horn-shaped-handles-and-incised-designs>, 2021/10/4 접속.

포틀랜드박물관 (2016) <http://portlandartmuseum.us/mwebcgi/mweb.exe?request=record;id=1588;type=901>, 2021/12/1 접속.

포틀랜드박물관 웹사이트 <자수백수백복자도> 설명, <http://portlandartmuseum.us/mwebcgi/mweb.exe?request=record;id=56767;type=101>, 2021/12/25 접속.

홍진근 (2005)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 전시작업 착수’, 국립중앙박물관 소식 2005/3/14,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united/6826>, 2022/1/15 접속.

[부록]

〈표 1〉 NRICH 사업 통번역 관련 사항

보고서 발간	조사 대상 박물관	현지 조사 통역	조사 보고서 번역
2004	보스턴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선승혜 연구사(당시 하버드 엔칭연구소 파견), 박물관 한국계 자원봉사자 김선주(Sonchu Gavell)	코리아헤럴드 통번역센터(소망번역), 조윤정, 선승혜(한글 번역)
2006	브루클린 박물관	우현수 연구원	번역자 언급 없음
2008	필라델피아 박물관	손희정(뉴욕 스토니부룩 주립대 한국학과 강사)	이창희
2009	코넬대 박물관	손희정 (뉴욕 스토니부룩 주립대 강사)	설 통역번역센터 문화연구팀
2010	호놀룰루 박물관	통역 언급 없음	설 통역번역센터
2011	예일대 도서관	심영신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동양학과 박사과정)	김영애 (예일대도서관 한국 담당 사서)
2012	LA카운티 박물관	조수경 (미술사 전공자)	이창희, Jessica Min Paik
2012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손희정 (뉴욕 스토니부룩 주립대 강사)	팬트랜스넷
2013	빅토리아 앨버트	심영신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정은
2015	시애틀 박물관	우현수 (필라델피아박물관 큐레이터)	이지현 (NRICH 연구원)
2015	오리건대 박물관	이지현 (NRICH 연구원)	이지현 (NRICH 연구원)
2015	포틀랜드 박물관	이지현 (NRICH 연구원)	이지현 (NRICH 연구원)
2016	영국 박물관	통역자 명시하지 않음	팬트랜스넷, NRICH 연구원(이재호, 조예진)

〈표 2〉 NRICH 사업 결과물 활용 현황

보고서 발간	조사 대상 박물관	보고서 활용
2004	보스턴박물관	보고서 내용을 웹사이트에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조계종의 문화재(39.591a-f) 반환 요청 관련 해 NRICH에 자문 구한 사실 정도만 웹사이트에 언급
2006	브루클린 박물관	박물관 웹페이지에 NRICH 보고서 영문 내용 그대로 수록한 경우 있음(예: 56.138.1a-b, 61.204.30). NRICH 사진 자료도 활용
2008	필라델피아 박물관	도록 내용 활용하지 않음. NRICH 언급은 우현수 큐레이터 소개에만 나옴
2009	코넬대 박물관	보고서 내용을 웹사이트에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보고서 판매
2010	호놀룰루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보고서 내용 활용하고 있지 않음. 한국 담당 큐레이터 언급 페이지에서만 NRICH 보고서 언급
2011	에일대 도서관	박물관 웹사이트에 NRICH 보고서 내용 그대로 수록된 사례 있음
2012	LA카운티 박물관	박물관 웹페이지 'Bibliography'에만 보고서 서지사항 수록(예: M.2000.15.193a-s)
2012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자료가 참고문헌으로 올라온 경우(예: 25.215.41a, b)는 있으나 NRICH 보고서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2013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보고서의 영문 부분만 수록, 영어 표현은 수정
2015	시애틀박물관	웹페이지에서 보고서 사진 자료 활용(예: 55.46). 참고문헌으로 보고서 수록(예: 60.18)
2015	오리건대 박물관	박물관 웹페이지 'Related Publications' 항목에 보고서 서지사항만 수록(예: 1964:3.11). 박물관 웹페이지에서 보고서 내용 전체 다운로드 가능
2015	포틀랜드 박물관	박물관 웹페이지에서 NRICH 사진 활용(사진 출처 밝힘, 예: 문자도 89.3.2). 박물관 웹페이지 'Related Titles' 항목에 '원어(original language)'라는 표시와 함께 한글 유물명 수록(예: 화로모양 그릇받침 1996.38.1)
2016	영국박물관	박물관 웹페이지에 보고서의 한, 영 내용 모두 수록

[Abstract]

**NRICH Survey Project on Korean Collections at Museums
Overseas: Subversive Translation at Museums as Contact Zones**

Hyunju Park
(Ewha Womans University)

Drawing on Clifford's concept of "museums as contact zones," this paper examined a project by South Korea'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In the project that lasted for almost four decades through to the 2010s, the NRICH conducted surveys on Korean collections at museums overseas. From the contact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the NRICH project used the Korean collections as a medium to raise the country's voice to be heard at the Western museums. The project featured diverse forms of "contact work," including on-site surveys at the museums (making corrections to the identities of some objects), support for conservation treatment, and negotiations for repatriation. As Korea led the collaborative initiative, the two cultures involved have been able to build reciprocity and address "asymmetrical power relationships" to a certain extent. The survey results were published in the form of bilingual catalogues, which in turn function as texts, or subversive translations, "in response to or in dialogue with" metropolitan representations. Also noteworthy is the fact that the content was not translated uniformly into the lingua franca of English but into those languages in use in the countries involved, facilitating future contact between the cultures.

Keywords: museums as contact zones, Korean collection, representation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subversive translation

주제어: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한국 문화재, 한국 표상,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복적 번역

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연구소 연구교수

beakey72@hanmail.net

관심분야: 문화재 번역, 박물관 번역, 번역 역사, 전문용어, 번역 보조 도구

논문투고: 2022년 2월 6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2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3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3월 22일